

# 군중이란 무엇인가?

РАПП

최근에 변혁운동이 군중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된 것 같습니다.

군중의 자연발생적 성장에 관한 일반론적인 견해는 레닌이 《무엇을 할 것인가?》 제2장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어떻게 조직하고 설득하여 우리 편을 만들 것인가 하는 일반론적 견해는 스탈린이 《레닌주의의 기초》에서 정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일반론적 정식을 외운다고 해서 군중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바라보는 군중의 개별적 관점은 서로 모두 다르고, 또 그마저도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각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각자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며 각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으며, 또 자기 생각에 대한 고유한 보존력을 확보하고 있기에 선불리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1902년의 러시아보다 1920-30년대의 독일의 상황에 더 근접해 있기 때문에 낙관적인 전망을 품고 공세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념의 정치 지형은 러시아 혁명기에 잠깐 등장하였다가 사라진 반동기와도 질적으로 다른 형태라서 도저히 과거의 예를 끌어다 쓰기에는 만만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득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여기서 내기는 당연히 어렵고, 먼저 ‘군중’이라는 범주가 어떠한 내용을 갖는지에 대해서만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기된 군중 설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중’과 ‘설득’이라는 범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중(Masse) 또는 대중이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도 사용하였던 범주인데, 대개 계급의식이 고양되지 않은 피억압 계급·계층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여기서 피억압 계급·계층이란, 자본주의의 발전 도상에서 장기적으로 프롤레타리아화될 수밖에 없거나, 이미 프롤레타리아화된 계급과 그에 속한 계층 전체를 의미합니다.

군중 범주는 엄연히 소부르주아 계급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에서 군중 사업은 소부르주아의 동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소부르주아적 동요는 그들의 계급적 관계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1846년 12월 P. W. 안넨코프에게 보낸 서신과 1850년 3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자 동맹에게 보낸 중앙위 호소문 등에 따르면 소부르주아는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파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에 마땅히 피억압 계급에 속합니다. 동요는 소부르주아 계급이 갖는 이중적 성격에서 산생됩니다. 소부르주아는 한편 변혁운동을 억압하고자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억압 계급의 측면도 지니고 있습니다.

스탈린은 《레닌주의의 제 문제 대하여》에서 군중을 ‘근로대중(working masses)’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탈린은 ‘근로대중’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한 계급의 정권은 오직 노동계급과 소부르주아 계급들의 근로대중, 우선 근로농민대중과 특수한 형태의 동맹을 맺어야만 튼튼해질 수 있으며 철저히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특수한 형태의 동맹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것인가? 비프롤레타리아 계급인 다른 계급의 근로대중과 동맹하는 것이 도대체 한 계급의 독재 사상에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J. V. 스탈린, 《스탈린 선집》, 제2권, 학우서방, pp. 14-15.)

1927년 9월 9일 제1차 미국 노동자 대표단과의 담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습니다:

“러시아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의 돌격대가 되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모든 피착취 대중을 자기 주위에 결속시키며 그들을 부르주아에게서 떼어 놓으며 부르주아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들의 지도자, 즉 정치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였다. [...] 수백만 근로대중은 프롤레타리아를 혁명의 유일한 수령으로 인정하였으며 [...]” (《스탈린 선집》, 제2권, pp. 365-366.)

그리고 스탈린은 군중에 관해 그들이 아직 “의식이 확고한 수준으로 고양되지는 않았으나” 당이 꼭 전취해야 하는 대상임을 전제합니다. 1927년 전 연방 공산당 (불세비키) 중앙위원회 및 중앙통제위원회 총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당에 대한 진리의 전부는, 그것의 전진만이 아니라 그것이 수백만 대중을 지도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수백만 대중을 이끌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실제로 운동에서 이탈함을 뜻한다. 그것은 후방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진한다는 것을 뜻한다. [...] 본래 레닌주의적 지도의 핵심은 전방이 후방을 지도하면서, 후방의 대중과 떨어지지 않고 전방이 전진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전방이 대중과 떨어지지 않으면서 참으로 수백만 대중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결정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즉, 대중이 자기의 경험에 기초하여 전방의 지시·지령·슬로건이 올바르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J. V. Stalin Works, Vol. 10, Moscow: 1954, pp. 29-30.)

《레닌주의의 기초》에서 역시 이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대중, 수백만 대중이 이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전위대를 지지할 각오를 표시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대중은 다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그것

을 이해할 수 있다. 수백만 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낡은 정권 전복의 불가피성을 알아 차릴 수 있게 하며 대중이 경험에 의하여 혁명적 구호의 정당성을 알아 차리는 것을 용이하게 할 그러한 투쟁 방법과 그러한 조직 형태들을 내세우는 것—여기에 과업이 있다.” (J. V. 스탈린, 《쓰딸린 선집》, 제1권, 학우서방, p. 344.)

첫 번째, 두 번째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군중이라는 범주가 〈노동계급의 지도를 받아들이는 군중〉이라는 개별자일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노동계급이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군중〉이라는 개별자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의 주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는 파편화된 개별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각성하여 집단적인 실천 활동을 감행하는 조직화된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레닌과 스탈린, 그리고 마오쩌둥은 이 조직화된 노동자를 근로대중이나 군중 등으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이들은 이 지도 세력으로서 프롤레타리아를 군중과 엄격히 구분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군중 범주는 피압박 계급·계층에 속하지만, 동시에 계급의식이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았음이 전제된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지도의 수준에 따라 당적 지도에 합치될 수도, 또는 그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경화된 노동자는 엄연히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속하지만, 대자적인 의미에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아니며, 군중이라는 측면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무산자로서 임노동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군중을 지도하는 주체로서, 정치화된 노동자계급에 속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되려 선진 노동자계급에 의해 설득되어야 하고 지도되어야 할 설득 대상인 군중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자계급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계급이라 불릴 수 있지만, 지도적 주체로서 거론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설득의 대상으로서 도시나 농촌의 근로대중으로 간주하는 게 옳습니다. 일례로 레닌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자연발생적 노동운동에 관여하는 노동자계급을 여러번 근로대중이라고 칭합니다. 역사적으로 착취 사회에서 투쟁하던 선진 노동자계급은 전체 노동자계급에서 항상 소수였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대중은 착취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부르주아 역시 이 점에 있어서는 노동자계급과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란, 소부르주아는 혁명화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근본 변혁에서 군중을 지도할 핵심 역량으로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혁명화한 소부르주아 군중을 우리는 혁명적 군중이라고 하고, 혁명화한 프롤레타리아를 우리는 선진 노동자계급, 또는 대자적 의미에서의 노동계급이라고 칭합니다.

후일에 설득 부분에서 다루겠지만, 설득은 군중이 지니고 있는 개별 경험적 한계를 지양하고 그것을 보편적 인식으로 상승시키는 과정입니다. 설득 주체는 설득 대상인 군중이 어떠한 경험적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군중에 어떠한 내용을 지니는 개별자적 지위를 부여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군중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뒤날 수 있으며, 또 거기서 우선되는 대상은 어느 구간인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설득에서 비로소 지도와 선전선동이라는 두 범주가 등장합니다.

군중에 대한 설득을 포기하는 것은 곧 변혁운동의 명줄을 스스로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변혁운동의 승리와 패배 여부는 우리 편의 군중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스탈린은 《레닌주의의 기초》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형성되는 도정 상에서 군중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개량주의적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군중을 혁명화하는 데 기여할 경우, 개량주의는 그것의 대립물로 전화하여 혁명적 수단으로 된다고 그는 봅니다. 그만큼 군중을 발동하는 것은 변혁 활동에서 기초이자 항상 따라다니며 설정되는 목표입니다.